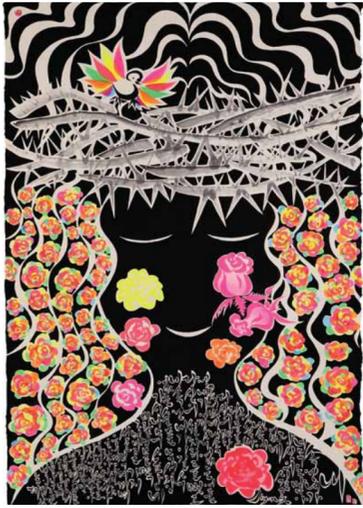


봄, 노래를 타고 그림처럼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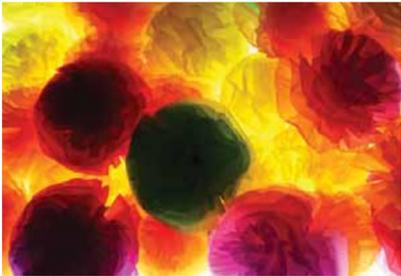
김창겸 작 'Garden-Journey'



홍지윤 작 '가시나무'



김계진 작 'Innocence'



양승수 작 '두개의 정원-꽃'



김경란 작 '끝과 시작 사이'

입춘이 한참 지났지만 아직까지 아찔, 저벅으로 바람이 쌀쌀하다. 지역 미술관과 공연장이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마음을 깨울 전시와 공연으로 시민들을 찾아가고 있다. 한편의 그림과 음악으로 한발 앞서 봄을 만나보자.

광주 롯데갤러리는 봄 맞이 기획전시로 28일부터 3월23일까지 꽃과 개화(開化)의 상징성을 키워드로 한 '화양연화'전을 진행한다.

3월은 겨우내 움크린 꽃들이 개화하는 시기로, 마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화려한 꽃에 비유한 '화양연화(花樣年華)'와도 같은 계절이다.

이번 화양연화전에는 꽃을 소재로 작업하는 김근중, 김창겸, 양승수, 장준석, 홍지윤씨 등 5명이 초대돼 평면 회화 16점과 입체 작품 1점을 선보인다. 영화 '화양연화'에서 진홍 빛깔 커튼이 방안 가득 흘러리던 모습처럼 작품들은 화려한 꽃으로 갤러리를 감싼다. 작가들은 꽃이라는 소재를 우리의 삶과 빛다 이야기한다.

전통 화조도를 모티브로 한 김근중씨의 작품은 반발한 꽃, 꽃봉오리, 새, 의자 등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김창겸씨는 다양한 이미지의 합성과 편집으로 자연, 인간, 동물이 한데 어우러진 정원을 작업에 재현한다.

양승수씨는 밝은 빛을 배경으로 자리한 오브제 형식의 종이꽃을 프레임에 가득 꽂아 대시켜 환영과 현실적 공간의 경계를 뚫는 표현하고, 홍지윤씨는 꽃과 여성이 어우러지는 화폭에 자작시를 함께 그려넣었다. 문의 062-221-1807~8.

광주 롯데갤러리, 28일부터 꽃과 개화 '화양연화' 전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봄 기획 '의기, 洋洋' 전시립합창단 3월 4일 문예회관에서 '봄을 부르는 소리'



광주시립합창단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도 28일부터 4월26일까지 상록전시관에서 봄 기획전 '의기, 양양(意氣, 洋洋)'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신진작가들이 초대됐다. 김경란, 김계진, 김명우, 김세진, 김혜철, 박소화, 박인선, 박화연, 서영기, 성혜림, 안지현, 엄기준씨 등 80년대 태어난 신진작가 12명이 한국화, 서양화, 조각 영상 등 모두 6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들은 봄 기운이 물씬 나는 작품으로 관람객을 기다리기도 하고 지구 온난화 등 인류적인 고민을 화폭에 녹여내기도 한다. 생명을 움트게 하는 나무의 순처럼 우리에

게 생각의 거리를 던지는 작품을 통해 우리 사회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기도 한다. 김계진씨는 하얀색 카라로 화폭을 가득 채웠다. 잎사귀의 푸른색과 순백의 아름다움을 내뿜는 하얀색 꽃이 인상적이다. 김경란씨는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등 재활용품을 자르고 덧붙이고, 색칠해 미술관에 커다란 꽃을 피웠다. 화폭에 꽃의 형상을 수놓고 투명 페트병으로 만든 꽃을 천정에 매달아 화려한 공중화원을 연상시키는 작품을 선보인다. 불날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도 있다. 김혜철씨는 냄비를 뒤집어 쓴 콩쿨리개 등 귀엽고 장난스런 어린

아이의 행상을 보여주는 작품을 선보인다. 햇바퀴 같은 삶을 사는 이들에게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해준다.

전시 개막식은 3월5일 오후 5시다. 한편 참여작가들은 이번 전시와 함께 서울 갤러리GMA에서 3월 한 달 간 소품 위주의 작품을 선보인다. 문의 062-613-5401.

광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임한규)이 신춘음악회로 2015년 공연을 시작한다.

오는 3월 4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봄을 부르는 소리' 공연은 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곡들로 레퍼토리를 꾸렸다.

눈길에 끄는 작품은 발레와 함께 어우러지는 브람스의 '사랑의 노래 왈츠'다. 박경애·전혜운·이정훈씨 등 광주시립무용단원들이 무대에 올라 멋진 공연을 선보인다. 안무는 전 시립무용단원이었던 박승희 합창단 기획담당이 맡았다.

루카마렌치오의 '마드리갈'도 관객들을 만난다. 마드리갈은 사랑과 열정을 노래한 연애시에 곡을 붙인 자유로운 형식의 가요로 보통 반주 없이 합창으로 부른다.

'나뭇개는 처녀', '꽃구름 속에', '고향의 봄' 등 봄내음 가득한 한국가곡과 중후한 매력의 돋보이는 남성합창곡들이 이어진다. 그밖에 '엘리아의 합창', 뮤지컬 '시카고' 중 'All that jazz' 등을 역동적인 무대와 즐거운 합창 퍼포먼스로 선보이며 현대 작곡가 에릭 휘태커의 곡도 만날 수 있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학생 50% 할인. 문의 062-415-520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금요일엔 돌아오렴' 광주 북콘서트

28일 5·18기념문화센터

세월호 유가족 인터뷰집

세월호 희생 학생들의 유가족 인터뷰집 '금요일엔 돌아오렴'의 북콘서트가 28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린다. '금요일엔 돌아오렴'은 '416 세월호 참사 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이 안산, 분항소, 팽목항, 광화문, 국회 등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써내려간 책이다. 지난 5일 서울에서 첫번째 북콘서트가 열렸으며 대구, 성남, 고양, 부산 등 전국을 순회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다영 엄마와 준우엄



마, 작가 명숙씨와 김순천씨가 참석할 예정이다. 또 인디언수니와 마을합창단, 인형극 빛그림극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인권 안전에 관한 어린이 책이 함께 전시된다. 한편 이번 행사는 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주최하고, (사)어린이도서관연구회 광주지부,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모임이 주관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일제의 침략과 서대문형무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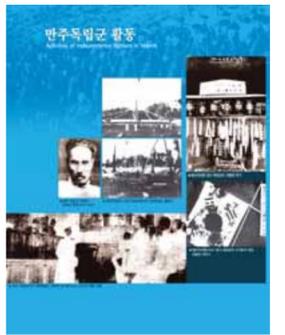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내일부터 3월 31일까지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관장 이명환)은 3·1운동 96주년을 맞아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공동으로 27일부터 3월31일까지 기념관에서 '일제의 침략과 서대문형무소'전을 진행한다. 서대문형무소는 일제 침략이 가속화됐던 1908년 경성감옥이라는 이름으로 개소했으며, 1923년 '서대문형무소'로 개칭됐다.

일제는 서대문형무소를 애국선열들을 탄압하기 위한 장치로 운영했다. 1945년 해방까지 약 4만여 명의 독립운동가가 수감돼 고초를 겪었고, 또 순국한 곳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제의 침략 과정과 독립운동을 살펴볼 수 있는 사진



자료 25점과 영상 등을 만날 수 있다. 한편 전시 기간 태극기바람개비 만들기와 일제강점기 교복입고 사진찍기 등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문의 061-334-539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활동단체지원사업 공모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도

광주문화재단이 2015년 '문화예술활동단체지원사업' 및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올해 '문화예술활동단체지원사업' 지원 규모는 모두 3억7700만원으로 문화와 예술을 통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가 대상이다. 8개 장르(음악·연극·무용·미술·사진·영화·문학·전통예술)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예술단체는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 지원 규모

는 모두 9300만원으로 국내·외에서 열리는 문화예술분야의 페스티벌, 세미나, 워크숍, 협력제작, 협력행사 등 창작교류활동에 참여하는 예술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예술인은 최소 500만원,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는 3월1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3월2일 오후 2시 제24층 다목적실에서 이번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회가 열린다. 문의 062-670-7444, 7446.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파주부엌 5회 연속 선정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 세미나 | 가족모임 |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 예약문의 (062)525-2111 | www.geumsoojang.com |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이태리 가구 40% OFF SALE

www.hong79.com(홍친구닷컴) | 신상품 다량 포함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동구청옆) **가구빌딩** | ☎ 1899-0240 | 이태리가구 직수입 판매 | 3월 19일까지